

**“가짜 K-상표를 찾아라” 성수동에 K-상표 수호천사가 뜬다!**

- 지식재산처, 7월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실시 -
- 정품·위조상품 비교, 가짜 K-상표 신고 체험 등 국민 참여 행사 운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 30.(목) 17시 올리브영N 성수(서울 성동구)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K-미용·K-음식 등 우리 상표의 인지도와 시장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상호·간판·매장 모방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가짜 K-브랜드 신고 센터*」를 통한 가짜 K-상표 신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 온라인 거래터 등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창구(주소 : ip-navi.or.kr/kbrands/angel.do)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곽은경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김충효 올리브영 전략기획담당,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이 참석해 K-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정품 구매와 가짜 K-상표 신고 실천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브랜드 수호천사’ 인증 행사, 정품과 위조상품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 해외 매장·온라인 거래터에서 발견한 가짜 K-상표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체험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캐릭터 ‘미리’를 활용한 팬 상품 전시와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상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류를 악용한 위조상품과 상표권 침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상표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홍보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와 K-상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모방하거나 부당하게 편승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번 홍보를 계기로 국민과 소비자가 K-상표 보호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신고한 정보가 실제 기업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일남 (042-481-1502)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오세진 (042-481-5999) 박수빈 (042-481-8709)

□ 행사개요

- (일시) `26. 7. 30.(목) 17:00 ~ 18:00
- (장소) 올리브영N성수 앞(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3)
- (세부일정) K-브랜드 수호천사 인증 수여식, 팝업 이벤트

구분		주요내용	비고
17:00~17:05	개회	■ 행사 소개	05분
17:05~17:20	수호천사 1호 임명식	■ 수호천사 1호 서명(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김충효 올리브영 CSO) ■ 수호천사 날개 착용 퍼포먼스 ■ 에어볼 이벤트 등 참여	15분
17:20~18:00	현장 수호천사 가입 이벤트	■ 행사 현장 방문 시민 ■ 수호천사 가입, 임명장 발급, 정품 인식 퀴즈	40분

□ 주요 행사내용(안)

포토월	전시존	굿즈존	제보실습	스크린
				
수호천사 인증하고 캠페인에 참여해요!	전시존 : 진짜 K-브랜드와 가짜K-브랜드를 비교하고 제보해보는 전시 공간!	QR 제보를 직접 실습하고 제보 방법을 배워요!	터치스크린에서 수호천사 인증 하고 캠페인에 참여해요!	

팝업 이벤트 주요내용



팝업 이벤트 공간 구성(안)